

오쿠다 히데오의 『사우스 바운드』에 수용된 오키나와의 ‘파이파티로마’ 전설*

김 용 의**

yukim@jnu.ac.kr

〈 目 次 〉

- | | |
|------------------------|----------------------------------|
| 1. 오키나와는 ‘일본의 파라다이스’인가 | 5. 『사우스바운드』에 나타난 ‘파이파티로마’의 수용 양상 |
| 2. 오키나와의 낙원 전설과 신화적 감성 | 6. 현대 일본사회의 낙원을 찾아서 |
| 3. 『사우스바운드』의 오키나와 표상장치 | |
| 4. 『사우스바운드』의 이원론적 대립구조 | |

Key Words : 오키나와(Okinawa), 낙원 전설(Paradise Regent),
신화적 감성(Mythological Emotion), 파이파티로마(Paipatyroma)

1. 오키나와는 ‘일본의 파라다이스’인가

흔히들 오키나와를 가리켜 ‘일본의 파라다이스’라 부른다. 이는 다분히 미국의 하와이를 염두에 둔 비유로, 연중으로 따뜻한 기후, 산호초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바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후덕한 인심, 그리고 장수촌 등의 이미지가 겹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누가 어떤 목적에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일본의 파라다이스’라는 이미지를 발신하기 시작했는지 흥미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오키나와는 ‘일본의 파라다이스’라는 담론이 형성된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61-A00006).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일본문화연구센터 연구원. 일본문화학 전공.

그런데 정작 그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혹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파라다이스’를 갈망해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파이파티로마(パイパティローマ)와 하이도난(ハイドゥナン)이다. 파이파티로마란 오키나와 야에야마 제도(八重山諸島)에 속하는 하테루마지마(波照間島)에 전하는 전설상의 낙원(樂園)이다. 파이파티로마의 파이(パイ)란 이 지역 말로 남쪽이란 뜻이며 파티로마(パティローマ)는 하테루마(波照間)의 별칭이다. 그대로 해석하면 ‘南波照間’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하이도난(ハイドゥナン)이란 하테루마지마와 함께 야에야마 제도에 속하는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에 전하는 전설상의 낙원이다. 여기서 하이(ハイ)란 남쪽이란 뜻이며 도난은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의 별칭이다. 파이파티로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南与那国島’란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오후다 히데오(奥田英朗)의 『사우스바운드(サウスバウンド)』에 수용된 파이파티로마를 주목하여, 파이파티로마라는 낙원이 문학작품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그 수용양상은 어떠한지 조명하고자 한다.

오후다 히데오의 『사우스바운드』는 2004년에 제131회 나오키상(直木賞)을 수상한 소설이다.¹⁾ 국내에서는 『남쪽으로 튀어』(2006, 양윤옥 옮김) 라는 이름으로 번역 소개되었다.²⁾ 오키나와 출신으로 좌충우돌하는 성격의 소유자인 아버지 우에하라(上原)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하테루마지마에 전하는 파이파티로마 전설이 작품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2. 오키나와의 낙원 전설과 신화적 감성

파이파티로마나 하이도난이라 부르는 낙원의 섬이 역사적으로 실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파이파티로마의 경우에는 타이완(臺灣) 남동쪽에 위치한 나서도(蘭嶼島)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추정되기도 한다.³⁾ 낙원의

-
- 1) 2006년에 발표되어 그 해 서점대상(本屋大賞) 2위에 오를 정도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호평을 받았다.
 - 2) 본고에서는 작품의 본문 인용을 『남쪽으로 튀어』(2006, 양윤옥 옮김)에 따랐다. 인용문장의 괄호 안 숫자는 이 한국어 번역본의 쪽수를 나타낸다.

섬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실재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서 낙원을 갈망하게 되었는지, 즉 낙원 전설을 탄생하게 만든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찰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맥락이란 오키나와의 민속종교 저변에 흐르는 신화적 감성을 의미한다. 현세와 낙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감이란 결국 신화적 감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이른바 니라이카나이(ニライカナイ) 관념을 들 수 있다. 니라이카나이란 오키나와에서 해상 너머에 위치한다고 전해지는 신들의 세계로 오키나와 민속종교에서 핵심을 이룬다.⁴⁾ 파이파티로마나 하이도난과 같은 낙원도 결국 니라이카나이의 범주에 속하는 변형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이파티로마에 대해서는 류큐왕부(琉球王府)의 기록인 『아에아마지마 연래기(八重山島年來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하테루마 촌(波照間村)에 위치한 히라타 촌(平田村)의 남녀 농민 사오십 명 정도가 오하테루마(大波照間)라고 하는 남쪽 섬으로 도망쳤다. 그 일을 보고하기 위해 하테루마 촌의 슈리 오야코(首里大屋子)인 마쓰시게씨(松茂氏)가 이시가키 오야쿠모이(石垣親雲上)인 모리쓰네씨(守恒氏)의 배로 나하(那覇)로 올라갔으나, 과실이 인정되어 면직 당했다. 아에아마(八重山)로 돌아가는 길에 남쪽 섬에 표착(漂着)하였다. 하테루마 슈리오야코(波照間首里大屋子)와 이시가키 오야쿠모이를 비롯하여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음 축년(丑年, 1649)에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돌아왔다고 한다.⁵⁾

이 기록에 나오는 오하테루마(大波照間)가 바로 파이파티로마이다. 슈리 오야코(首里大屋子) 및 이시가키 오야쿠모이(石垣親雲上)는 관직 이름이다. 두 관리는 남녀 농민 사오십 명이 오하테루마(大波照間)로 도망친 사건을 당시 류큐왕부가 위치했던 나하(那覇)로 보고하러 왔다가 문책성 면직을 당하게 된다. 집권자의 입장에서 불 때에 농민들의 탈출은 중앙집권을 위협하는 큰

3) 沖縄タイムス社(1983 : 194).

4) 오키나와 설화에 등장하는 니라이카나이에 관해서는 오키나와 설화집인 『유로설전(遺老説傳)』(2010, 김용의역)의 제42화, 제101화를 참조.

5) 石垣市(1999 : 28).

사건이었던 셈이다.

앞의 기록에는 농민 사오십 명이 오하테루마 즉 파이파티로마로 도망친 원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다른 전설과 조응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가 『해남 소기(海南小記)』에서 소개한 다음 사례를 주목하기로 한다.

섬사람들은 이 하테루마(波照間)의 남쪽 먼 바다에 세리(稅吏)가 아직 모르는 극락 같은 섬이 한 곳 파도에 감추어져 있다고 믿었다. 옛날에 농민들의 세금이 건지기 어려울 만큼 과중했던 시대에 이 섬의 야쿠(屋久)에 사는 야쿠아카마리(ヤクアカマリ)라고 하는 자가 과중한 세금에서 벗어나고자 바다를 두루 항해하다가 마침내 그 섬을 발견하였다. 본인이 살고 있던 섬 이름을 따서 南波照間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서복(徐福)이 대제(大帝)의 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십야에 남너노소 십 수 명을 배에 싣고서 몰래 그 섬으로 이주하였다. 그 때 여자 한 명이 집에 두고 온 냄비를 가질러갔다. 그 사이에 날이 밝자 그대로 배를 출발시켰다. 나베가키(鍋釜)라고 하는 지명은 그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⁶⁾

이 사례는 얼핏 보아 나베가키(鍋釜)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된 유래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⁷⁾ 야나기타 구니오가 소개한 전설을 보면 앞서 인용한 『야에야마지마 연래기』의 기록과는 달리 농민들이 파이파티로마를 향해 탈출을 감행한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⁸⁾ 탈출을 감행한 이유는 과중한 세금 때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과중한 세금이란 이른바 인두세(人頭稅)를 가리킨다. 인두세란 1902년까지 오키나와에 존속했던 조세 부과제도를 말한다. ‘인두(人頭)’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류큐왕부에서 인구조사에 근거하여

6) 柳田國男(1963 : 292).

7) 나베가키(鍋釜) 전설에 관해서는 狩俣恵一・丸山顯徳(2003 : 194~195)에 「鍋釜き田の由来」라는 제목으로 이 지역에 전하는 이야기가 채록되어 있다.

8) 이 점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문헌자료와 민중들의 입장에서 전승된 구전자료의 차이일 것이다. 류큐왕부(琉球王府)의 기록인 『야에야마지마 연래기』에는 농민들이 탈출했다는 사실만이 서술되어 있을 뿐, 그 원인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이 지역의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된 전설에는 과중한 세금이 원인이었다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 점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차이가 어떠한 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다.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차이에 관해서는 윌터 J 옹, 이진우·임명진역(1995 : 60~92)를 참조.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금을 부과하였다.⁹⁾ 하테루마지마 주민들은 과중한 인두세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파이파티로마라는 낙원을 찾아서 탈출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오키나와에서도 주로 아에야마 지역에 전하는 전설 속의 낙원은 근대 이후 일본의 문학, 영화, 만화 등 여러 장르를 통하여 그 이미지가 새롭게 각색되고 재생산되었다.¹⁰⁾

3. 『사우스바운드』의 오키나와 표상장치

『사우스 바운드』의 작품 구성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전반부는 우에하라 가족들의 도쿄생활이고 후반부는 도쿄에서 오키나와로 이사한 다음부터의 생활이다. 오쿠다 히데오는 『사우스 바운드』의 전반부 여기저기에 오키나와를 표상하는 전통적인 소도구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다. 이 소도구들은 도쿄라는 일본사회의 중심지에서 생활하는 우에하라 가족들을 오키나와라는 문화 아이덴티티로 귀속시키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에하라 가족들이 언젠가 오키나와로 귀향할 것임을 암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사회와 오키나와사회, 궁극적으로는 파이파티로마 사이에 놓인 징검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작품에 등장하는 중요한 몇 가지 소도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오키나와어로 사타안다기(サ-タ-アンダ-ギ-)라 부르는 간식이다. 사타안다기는 ‘설탕을 기름에 튀긴 것’이란 의미로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전통과자이다. 소맥분에 설탕과 계란을 섞어 반죽한 것을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튀긴다.¹¹⁾

9) 인두세에 관해서는 大浜信賢(1971), 沖繩國際大學南島文化研究所(2003)를 참조, 沖繩國際大學南島文化研究所(2003)에는 중세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미야코제도(宮古諸島) 및 아에야마제도(八重山諸島)의 인두세 실상에 관한 여러 편의 논고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제4장 「인두세에 관한 전승과 가요(人頭税に関する伝承と歌謡)」에는 인두세에 관한 구전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10) 예를 들면 나카에 유지(中江裕司)가 1994년에 파이파티로마를 소재로 하여 영화 『파이파티로마』를 제작하였다.

집에 돌아오자 부엌에 낫선 아저씨가 서있었다. “오, 어서 오너리. 네가 지로구나.” 돌아보며 하얀 이를 내보인다. 테이블에서는 모모코가 과자 빵 같은 것을 붙이 불룩하도록 먹고 있었다. “지로도 해줄 테니까, 거기 앉아.” 아저씨는 냄비에서 뭔가를 튀기고 있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갔을까. 집 안에 인기척이 없었다. 모모코를 보니 낫선 사람을 경계하는 기색도 없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덜렁거리고 있었다. “사타안다기라는 거야?” 아저씨는 튀긴 과자를 접시에 담아주었다. “오키나와의 간식이야. 도넛하고 비슷하다고 할까.”(1권 202~203쪽)

앞의 인용문은 같은 오키나와 출신으로 아버지 후배인 아키라 아저씨가 부엌에서 사타안다기라는 오키나와 간식을 만들어주는 장면이다. 처음 먹어보는 오키나와 과자를 지로의 여동생 모모코가 맛있게 먹고 있다. 여기 등장하는 사타안다기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오키나와라는 문화 아이덴티티의 표상물이다. 그리고 이 아키라 아저씨가 만들어준 사타안다기를 계기로 비로소 우에하라 가족의 집안 내력이 구체화된다. 다음 장면을 주목하기로 한다.

지로도 사타안다기라는 간식을 먹어보았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 (중략)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쿵쾅거리는 발소리만 들어봐도 뻘히 아버지였다. “우와 맛있겠는데?” 부엌에 얼굴을 내밀고, 아키라 아저씨가 만들어놓은 간식을 손으로 덩석 쥐었다. “아 그럼네. 옛날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거야.” 그 말에 지로는 아버지를 보았다. 오키나와의 간식이 그렇다고? 아버지는 도쿄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나? 게다가 아버지 입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다. 나한테는 할머니인 셈인데... “아버지가 왜 오키나와 과자를 좋아해?” 안색을 찬찬히 살피며 물어보았다. “우리 조상은 오키나와의 이시가키 섬(石垣島)에 사셨어. 우에하라라는 성씨는 오키나와에 많아.” 무뚝뚝하게 대답한다.(1권 204쪽)

이 장면은 여동생 모모코가 사타안다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로도 함께 먹고 있는데, 밖에서 귀가한 아버지가 가세하여 사타안다기를

11) 沖繩タイムズ社(1983 : 167)에 의하면 이 과자는 원래 중국에서 전해졌다고 한다. 중국에서 쓰는 카이코우치우(開口球) 그리고 타이완에서는 카이코우샤오(開口笑)라 부른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시로안다기(白アンダーギー)라는 튀김과자와 세트로 차려놓는다. 사타안다기는 嘉手川學(2001 : 69)에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집어먹는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타안다기를 매개로 한 아버지와 아들 지로의 대화를 통해, 비로소 아버지가 이시카키 섬 출신이라는 우에하라 집안의 내력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우스바운드』에서 오키나와라는 문화 아이덴티티를 표상하는 중요한 소도구 중의 하나가 류큐 가라테(琉球空手)이다. 가라테(空手)는 글자 그대로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도수공권(徒手空拳)만으로 호신(護身)하는 무술이란 뜻이다. 오키나와 고유무술인 데(手)와 중국에서 전해진 권법(拳法)이 융합하여 발전하였다고 한다.¹²⁾

“옛날에는 그랬지. 내가 입당했을 무렵에는 벌써 떠나신 뒤였지만 대학에서는 전설의 투사로서 이름이 쟁쟁했어. 우익 학생들까지 길을 비켜주었다고 할 만큼 신화적인 인물이었지. 우선 류큐 가라테(琉球空手) 선수였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였다. 조깅 한 번 하는 꼴을 못 본 아버지가 가라테 선수라고?(1권 272쪽)

이 부분은 아키라 아저씨가 지로에게 옛날에 지로 아버지가 학생운동권의 전설적인 투사이자 가라테 선수였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지로가 “조깅 한 번 하는 꼴을 못 본 아버지”가 가라테 선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한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전혀 다른 진면목에 관해서 처음 들은 것이다. 아키라 아저씨가 만들어준 사타안다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에하라 집안의 내력이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 처음 보이는 아버지의 내력에 관한 정보이다. 그런데 여기서 류큐 가라테는 앞의 사타안다기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사타안다기가 오키나와라는 문화 아이덴티티를 표상하는 소도구였다면, 류큐 가라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폭력적인 일본사회에 저항하는 수단이라는 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대화에서 이 점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가쓰의 무릎차기가 명치에 그대로 들어맞았다. 지로는 땅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12) 沖縄タイムス社(1983 : 770~774)를 참조. 다이쇼(大正)시대부터 쇼와(昭和) 초기에 걸쳐 일본 본토에 소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자 표기도 ‘唐手’에서 ‘空手’로 바뀌었다고 한다.

(중략) 지로의 얼굴은 여기저기 반창고였다. 무카이네 집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다. “아버지.” 우뚝 선 채로 지로가 말했다. “왜?” 아버지는 드러누운 채였다. “류큐 가라테 좀 가르쳐줘.” 몇 초의 침묵 여 지로를 흘끔 쳐다본다. “그런 얘기 누구한테 들었나?” “아키라 아저씨한테.” “.....끄응.” 돌아눕는다.(1권 286쪽)

이 부분은 아키라 아저씨로부터 아버지가 류큐 가라테 선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로가 아버지에게 가라테를 가르쳐달라고 조르는 대목이다. 가라테를 가르쳐달라고 조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가쓰라는 불량 중학생에게 당한 폭력이었다. 가쓰는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불량학생으로 초등학생인 지로와 그 친구들을 괴롭히는 존재이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 등장하는 가쓰는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즉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힘없는 소수자들을 괴롭히는 다수의 강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여기서 류큐 가라테란 일차적으로는 지로가 가쓰에게 대항하는,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사회적 소수자가 다수의 강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자위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로 동원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류큐 가라테의 역사적 발생과정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주지하다시피, 오키나와는 산호초로 유명한 섬이다. 오키나와를 ‘일본의 파라다이스’로 부를 때에도 반드시 빠지지 않고 거론되곤 한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오키나와에서는 산호초가 어로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오키나와 표상물의 하나이다.¹³⁾ 『사우스바운드』에는 사타안다기, 류큐가라테와 더불어 산호초가 오키나와의 문화 아이덴티티를 표상하는 상징물로 등장한다. 작품 속에서 확인하기로 한다.

그리고는 “모모코한테는 이거 줘야지.”하고 화제를 돌렸다. 아키라 아저씨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산호 목걸이었다. “와, 예쁘다.” 모모코의 눈이 당장 반짝반짝 빛났다. 금속 체인 끝에 작은 나뭇가지 모양의 빨간 산호가 매달려 있었다. 남자인 지로의 눈에도 예쁘게 보였다. “아저씨가 어렸을 때는 바다에 잠수해서 이런 걸 잔뜩 따오곤 했어. 가끔 본섬에서 붓짐장수 아저씨가 찾아와서 사갔거든. 용돈이 쓸쓸히 벌렸지. 벌써 20년도 더 된 옛날 일이다만.” 모모코가 목에 걸어보았다.(1권 301~302쪽)

13) 오키나와의 산호초와 어로활동에 관해서는 渡久地健(2010)을 참조.

이 장면은 우에하라 가정에 기거하던 아키라 아저씨가 집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지로에게 시계를 선물하고 모모코에게는 산호 목걸이를 선물하는 대목이다. 지로와 모모코가 난생 처음 먹어보는 사타안다기라는 오키나와 과자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맛있게 먹은 것처럼, 오키나와 산물인 산호 목걸이는 “남자인 지로의 눈에도 예쁘게” 보일 정도로 매력적인 물건이다. 사타안다기, 류큐가라테, 산호 목걸이로 이어지는 오키나와 표상물에 대한 친근감은 언젠가 이 아이들이 오키나와에 귀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4. 『사우스바운드』의 이원론적 대립구도

사타안다기, 류큐가라테, 산호초 등은 소설 속에서 오키나와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 문화적 표상물로 동원되고 우에하라 가족들이 언젠가는 오키나와로 돌아갈 것임을 암시하는 소도구 역할을 하였다. 이 소설의 구도에서, 앞서 예시한 소도구의 역할 이상으로 오키나와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표상하고, 이 아이덴티티에 귀속된 구성원들의 결속을 보여주는 것이 오키나와 대 일본 본토라는 이원론적 대립구도이다.

이 소설은 작가 오쿠다 히데오에 의해 철저하게 오키나와 대 일본본토라는 이원론적 대립구도로 설정되어 있다. 그 전형적인 경우가 이리오모테(西表島) 소학교로 상징되는 “커뮤니티” 평등사회 오키나와와 가쿠슈인(學習院)으로 상징되는 계급사회 일본이다. 그리고 우에하라 일가가 오키나와로 이사하여 정착한 이리오모테지마 개발을 둘러싼 지역사회 오키나와와 중앙집권적 자본주의사회 일본의 대립구도이다. 먼저 가쿠슈인 관련 대목을 고찰하기로 한다.

요즈야 3가의 네거리로 나섰다. 일요일이기도 해서 길거리에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역을 향해 신주쿠 거리의 인도를 천천히 지나갔다. 나카노와는 분위기가 전혀 판관인 거리였다. 깨끗하고 넓고,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도 없었다. 구로키가 만약 이 동네에서 태어났다면 어디서 놀아야 할지, 펍 곤란했을 거이다. 그리고 가쿠슈인에 다니는 애들 때문에 진짜 신경질 났을 것이다.(1권 181쪽)

이 장면은 지로가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확인하기 위해 외가를 찾아 나선 대목이다. 소설 속에서 가쿠슈인이 처음 언급된다. 지로가 어머니의 ‘과거’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자신을 괴롭히던 불량 중학생 가쓰로부터 들은, 어머니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이었다. 즉 가쓰로부터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사람을 칼로 찌르고 형무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지로가, 외가가 요즈야에서 유명한 전통의상 전문점을 하고 있다는 말만 믿고 외가를 찾아 나선 것이다. 지로의 외가가 전통의상 전문점을 경영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상징적이다. 여기서도 오키나와 전통문화 대 일본 전통문화의 대립이라는 설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로가 걷고 있는 요즈야 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카노 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불량해 보이는 사람’은 살 수 없는 문화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공간이다. 그 문화적 이질성의 중심에는 가쿠슈인이 자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가쿠슈인은 일본왕실의 왕족을 비롯한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로 유명한 곳이다. 1877년에 화족학교학칙(華族學校學則)이 제정되어 출발하였으며 1884년에 궁내성(宮內省)에서 관할하는 관립학교로 지정되었다.¹⁴⁾ 즉 일본 상류계급사회의 상징적인 기관이다.

흥미로운 것은 소설 속에서 지로와 모모코에게 일본 상류계급사회의 상징인 가쿠슈인에 편입할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학교는 어찌지? 가쿠슈인에 편입시킬까? 이사장에게 부탁하면 두 명 정도야” “아휴, 당신은 좀 조용히 하시라니까.” 가쿠슈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지로는 내심 놀랐다. 일류 사립학교 같은 데는 자신과는 애초부터 인연이 없는 세계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세상이 약간만 달랐어도 나 역시 그쪽 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1권 246)

앞의 인용문 대화는 지로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주고받는 대화이다. 외가를 찾아간 지로와 모모코를 반갑게 맞이한 외할아버지가 외손주들을 가쿠슈인에 전학시키고자 한다. 이 말을 들은 지로가 ‘자신과는 애초부터 인연이 없는 세계’로 생각했던 가쿠슈인을 “세상이 약간만 달랐어도 나 역시 그쪽

14) 가쿠슈인의 성립 및 역사에 관해서는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編(1983 : 186~187)을 참조

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대목이다. 우에하라 가족의 오키나와 이사가 결정된 이후, 아이들의 가쿠슈인 편입은 더욱 구체화된다. 우에하라 가족이 오키나와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외가에서 아이들만이라도 외가에서 함께 살기를 희망하며 가쿠슈인 편입을 설득한다.

“모모코, 어머니? 아무래도 가쿠슈인으로 전학하는게 좋겠지? 외할아버지가 전에 이사로 재직하셨으니까 언제든지 편입할 수 있어.” 외할머니가 말했다. 지로가 오기 전부터 모모코를 달래고 있었던 모양이다. (중략코를“가쿠슈인이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지로도 모모코도 호리우치 가문의 혈통이야. 그저 남들 하는 대로 공부하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1권 365~366)

외할아버지는 가쿠슈인의 이사로 재직할 적이 있다. 따라서 지로와 모모코가 외가에 남기로 결심만 한다면 가쿠슈인으로 편입할 수 있다. 즉 일본 상류 사회로 편입될 절호의 기회가 부여된 셈이다. 그러나 지로와 모모코는 외할머니의 설득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끝내 이를 거부하고 일본사회의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변방에 위치한 ‘커뮤니티’ 오키나와사회를 선택한다. 그들이 가쿠슈인을 거부하고 선택한 이리오모테지마의 소학교는 전교생이 5명에 불과한, 가쿠슈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곳이다.

『사우스 바운드』에 설정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원론적 대립구도는 우에하라 일가가 처음 정착한 오키나와 이리오모테지마의 리조트 개발문제와 관련한 지역사회 오키나와와 중앙집권적 자본주의사회 일본의 대립이다.

아버지의 후배인 아키라 아저씨 사건을 계기로 오키나와의 하테루마지마로 이사한 우에하라 가족은 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하테루마 주민들의 호의로 이리오모테지마에 있는 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곳은 도쿄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이지만 정신적으로는 해방감을 느끼며 차츰 안정을 되찾고 적응해간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에하라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즉 우에하라 가족이 기거하는 곳이 리조트 개발 예정지라 철거를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 및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리조트 개발회사 및 회사 편에 서서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정치가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전개된다.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우타키(御嶽)가 등장하는 것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우타키란 오키나와 전역에 분포한 민속종교의 성역(聖域)으로 오키나와의 민속종교 중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¹⁵⁾ 지역주민들의 개발 반대 논리에는 우타키로 상징되는 신앙공동체의 파괴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에하라 가족 특히 아버지의 극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에하라 가족은 새로 정착한 집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캐나다 출신의 떠돌이 여행가 베니가 일으킨 화재사건이었다. 베니는 리조트 개발회사라는 거대자본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다이나마이트까지 터뜨리는데, 그 결과 마침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을 남겨둔 채 둘이서 파이파티로마라는 낙원을 찾아서 탈출하게 된다.

5. 『사우스바운드』에 나타난 ‘파이파티로마’의 수용 양상

『사우스바운드』에는 작품 속에 오키나와사회 대 일본사회라는 이원론적 대립구도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이 같은 대립구도는 물론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의도적인 설정이며, 작품의 끝 부분에서 우에하라 부부가 파이파티로마를 지향하는 직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즉 아버지는 일본사회에 대한 저항, 패배의식, 환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사회와는 전혀 다른 ‘커뮤니티’를 꿈꾸며 전설 속의 파이파티로마를 지향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로 한다.

“음. 책이 출판되면 여기저기서 집필 의뢰가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남쪽 섬으로 이사할거야?” “남쪽 섬?” “그런 데가 있어. 오키나와(沖繩)의 하테루마 섬(波照間島)보다 더 먼 곳에 지도에도 실리지 않은 비밀의 섬이.”(1권 75쪽)

이 부분은 『사우스바운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파이파티로마이다. 아버

15) 우타키에 관한 국내 논고로는 表仁柱(2001) 및 김용의(2004)를 참조. 表仁柱(2001)는 한국의 남도지역 촌락공동체신앙과의 비교연구이며, 김용의(2004)는 야에야마제도에 위치한 다케토미지마(竹富島)의 우타키 현황 및 양상에 관한 고찰이다.

지와 아들 지로의 대화 속에 파이파티로마가 등장한다. 우연한 기회에 책을 출판하게 된 아버지가 책이 많이 팔리고 유명하게 되면 ‘지도에도 실리지 않은 비밀의 섬’으로 이사를 가져고 말한다. 아직 파이파티로마라는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비밀의 섬’이 바로 파이파티로마이다. 이 대화 부분을 통해 비록 지금은 도쿄라는 일본사회의 중심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늘 마음속으로 파이파티로마라는 이상세계를 동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계기는 의외로 다른 데서 찾아온다. 즉 아버지의 후배인 아키라 아저씨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계기로 우에하라 가족이 오키나와로 이사를 가게 된다. 오키나와 하테루마지마의 전설로 전하는 파이파티로마는 소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묘사되었을까?

조타실의 아버지만 빼고 넷이서 나란히 뱃머리에 앉았다. 각자 진한 탄성을 내뿜었다. 이 순간, 모두들 진심으로 행복하다는게 손에 잡힐 듯이 느껴졌다. “너희 ‘파이파티로마’라는 거 알아?” 어머니가 말했다. “몰라.” 셋이서 나란히 대꾸했다. 하테루마 섬 앞쪽에 사실은 또 하나의 작은 섬이 있는데, 지도에는 실려있지 않아. 그게 바로 파이파티로마야. “아, 그거! 아버지가 가끔 얘기하던 ‘야에야마의 비밀의 낙원’이라는 섬? 본토 사람에게 알려지는 걸 피하려고 야에야마 사람들이 모두 비밀로 한다는 곳이지?” 누나가 갑판에 기다란 다리를 내던진 채 대답했다. “나도 들어봤어. 그걸 파이파티로마라고 하는구나.” 도쿄에서 아버지가 언젠가는 꼭 이주할 거라고 했던 섬이었다. 물론 또 괜한 소리구나 하고 상대도 해주지 않았었다. “그 섬은 어느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아. 자급자족으로 살아가고, 전쟁도 없고, 모두가 자유야.” “너무 좋겠다. 거기도 우리나라야?” 모모코가 물었다. “아니, 국가 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커뮤니티야. 사람들의 모임.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지도에 실리는 것도 거부한 거야.” “헤에, 그런 게 가능해?” “바보, 전설이야, 가능할 리가 있냐?” 지로가 모모코에게 쏘아붙였다.(2권 225~226쪽)

이 부분은 우에하라 가족이 모두 아키라 아저씨에게 물려받은 배에 타고서 고기잡이에 나선 대목이다. 여기서의 가족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파이파티로마가 어떤 세계인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파이파티로마는 ‘야에야마의 비밀의 낙원’이자 어느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고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세계, 그리고 전쟁도 없고 모두가 자유인 ‘커뮤니티’로 묘사되었다.

여기서 다시 야나기타 구니오가 『해남소기(海南小記)』에서 소개한 하테루마지마의 파이파티로마 전설을 주목하기로 한다. 전설에서 섬사람들이 파이파티로마로 탈출을 감행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인두세라는 과중한 세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과중한 세금 때문에 파이파티로마로 탈출을 감행하였을 뿐으로, 파이파티로마가 어떤 세계인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사우스바운드』에서는 파이파티로마의 이미지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즉 비밀의 낙원,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는 자급자족의 세계, 전쟁도 없고 누구나 자유로운 커뮤니티로 수용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 수용된 파이파티로마의 세계란 작금의 일본사회, 다시 말하자면 거대자본이 만연하고,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고, 사람들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파이파티로마와는 전혀 다른 세계이다.

그런데 우에하라 가족,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파이파티로마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 마지막으로 이 점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소설 속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파이파티로마가 아닌 하테루마지마에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를 “파이파티로마는 너무 좋은 곳이라 나중에 가려고 아껴둔 거야.”(2권 298쪽)라는 지로의 말로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로가 학교에서 낭독하는 파이파티로마 및 오야케 아카하치(オヤケ アカハチ) 전설을 통해서 파이파티로마가 어떤 세계인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소설의 끝을 맺는다.¹⁶⁾ 파이로는 전설을 낭독하며 비로소 아버지가 그토록 갈망하던 파이파티로마가 어떤 세계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16)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이 소설에는 오키나와에 전하는 여러 전설이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파이파티로마 전설과 오야케 아카하치 전설이다. 오야케 아카하치는 한국에서 홍길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 해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15세기말에 야에야마(八重山)에서 세력을 떨치고 미야코지마(宮古島)의 세력과 대립하였으며, 슈리(首里)왕부에 반기를 들고 역도로 몰려 왕부 토벌군에게 주살되었다고 전해진다. 오야케 아카하치에 관해서는 오키나와 설화집인 『유로설전(遺老說傳)』(제68)에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사우스바운드』와 오키나와에 전하는 여러 전설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6. 현대 일본사회의 낙원을 찾아서

인간은 누구나 낙원을 꿈꾼다. 그 낙원은 개인적 성격의 낙원일 수도 있고 집단적 성격의 낙원일 수도 있다. 혹은 종교적 성격의 낙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후에나 가능한 낙원일 수도 있고 현세에 공간을 달리하여 존재하는 낙원일 수도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가혹한 환경에 처한(처해 있다고 믿은) 사회일 수록 현세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낙원을 갈망해 왔다.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는 낙원 관련 전설이 다양한 형태로 전해진다. 불교 관음신앙의 보타락가(補陀落迦), 중국 진시황의 명을 받은 서복(徐福)이 찾아 나섰다는 이상향, 이청준의 『이어도』라는 소설로도 널리 알려진 제주도의 이어도, 오키나와의 파이파티로마나 하니도난 등은 모두 같은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오키나와 히데오의 『사우스바운드』에 등장하는 파이파티로마 전설을 사례로 하여, 파이파티로마 전설이 소설 속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파이파티로마에 관한 문헌기록 및 구전기록을 비교하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지적하였다. 같은 사건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음에도 문헌자료와 구전자료 사이에는 그 기술 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인정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지를 발전시켜가고자 한다.

『사우스바운드』의 소설 구성은 우에하라 가족들의 도쿄생활을 다룬 전반부, 그리고 도쿄에서 오키나와로 이사한 다음부터의 생활을 다룬 후반부로 크게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전반부에는 도쿄가 소설의 무대임에도, 소설 여기저기에 오키나와를 표상하는 전통적인 소도구들이 의도적으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사타안다기, 류큐가라테, 산호초 등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소도구들은 오키나와라는 문화 아이덴티티의 표상이자, 일본사회에서 오키나와사회 궁극적으로는 파이파티로마로 건너뛰기 위한 징검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류큐 가라테의 경우는 폭력적인 일본사회에 저항하는 수단이라는 더욱 적극적인 의미가 부

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작가 오쿠다 히데오에 의해 의도적으로 오키나와 대 일본 본토라는 이원론적 대립구도가 설정되어 있다. 그 중 한 축은 이리오모테(西表島) 소학교로 상징되는 “커뮤니티” 평등사회 오키나와와 가쿠슈인(學習院)으로 상징되는 계급사회 일본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지로와 모모코는 그 둘 중에서 오키나와르 선택한다. 나머지 한 축은 우에하라 일가가 오키나와로 이사하여 정착한 이리오모테지마의 리조트 개발을 둘러싼 지역사회 오키나와와 중앙집권적 자본주의사회 일본의 대립구도이다. 전자의 대립이 원인이 되어 우에하라 가족은 도쿄에서 오키나와의 이리오모테지마로, 후자의 대립이 원인이 되어 우에하라 부부가 파이파티로마를 지향하게 되는 셈이다.

『사우스바운드』에 등장하는 파이파티로마는 소설에서 비밀의 낙원,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는 자급자족의 세계, 전쟁도 없고 누구나 자유로운 커뮤니티 세계로 수용되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거대자본이 만연하고,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고, 사람들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작금의 일본사회와는 대칭점에 위치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작자는 소설 속에서 파이파티로마 세계를 통해 작금의 일본사회를 우회적으로 통렬하게 비판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參考文獻>

- 김용의(2004) 「오키나와 다케토미지마(竹富島)지역의 우타키(御嶽)신앙」 『日本語文學』 제2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212
- 김용의역(2010) 『오키나와민족설화집 유로설전』 전남대학교출판부 pp.103~105, pp.245~247
- 오쿠다 히데오, 양윤옥 옮김(2006) 『남쪽으로 튀어』 1.2 은행나무
- 이청준(1998) 『이어도』 열린원
- 월터 J 용, 이진우·임명진역(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pp.60~92
- 조명기(2010)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과 로컬리티」 『한국언어문학』 제73집 한국언어문학회
- 表仁柱(2001) 「沖繩の御嶽と韓国南道地域の村落共同体信仰の比較考察」 『韓国と沖繩の社会と文化』 第一書房

- 石垣市(1999) 『八重山島年来記』(沖縄石垣市史資料叢書) 石垣市 p.28
 沖縄国際大学南島文化研究所(2003) 『近世琉球の租税制度と人頭税』 日本経済評論社
 沖縄タイムス社(1983) 『沖縄大百科事典』 沖縄タイムス社 p.194 p.167
 大浜信賢(1971) 「南波照間逃避行」 『八重山の人頭税』 三一書房
 奥田英朗(2005) 『サウスバウンド』 角川書店
 嘉手川學(2001) 『沖縄チャンプルー 事典』 山と溪谷社 p.69
 狩俣恵一・丸山顯徳(2003) 『西表島・黒島・波照間島の伝説・昔話』 三弥井書店 pp.194～
 195
 川村湊(2003) 『補陀落』 作品社 pp.1～88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編(1983) 『國史大辭典3』 吉川弘文館 pp.186～187
 柳田國男(1963) 『定本柳田國男集』 筑摩書店 p.292
 渡久地健(2010) 「渡久地健 奄美沖縄のサンゴ礁の知識と漁労活動」 『해양의 세계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제5회오키나와국제학술회의 요지집

접 수 일: 12월 31일
 심사완료: 1월 26일
 게재결정: 1월 28일

K C I

<要旨>

奥田英朗の『サウスバウンド』に描かれたパイパティローマ伝説

本稿は、奥田英朗の『サウスバウンド』に語られたパイパティローマ伝説を取り上げ、パイパティローマ伝説が小説の中にどのように受け入れられたか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まずパイパティローマについての文獻記録と口傳記録の比較によって、両者の間に見られる語り方の相違について指摘した。この問題については、これからも追究していきたい。

『サウスバウンド』の筋の展開は、上原家の東京生活を中心として述べられた前半部、また東京から沖縄へ引っ越してからの生活を中心として述べられた後半部、というふうに分けて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特に前半部には、東京が小説の主な舞台になっいるにもかかわらず、小説のいたるところに、沖縄を表象する様々な小道具が動員されている。本稿では、サ-タ-アンダ-ギ-、琉球空手、珊瑚礁などを取り上げ、この点についての分析が行なわれた。つまりそれらの小道具は、「沖縄」という文化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表わす象徴であり、日本社会から沖縄社会に、さらに沖縄社会からパイパティローマに向かうための飛び石のような意味を持っていたと言える。その中でも、琉球空手の場合は、日本社会からの暴力に身を守る社会的道具、もしくは文化的な防衛手段という、より積極的な意味がこめられていた。

ところで、この小説には意圖的に沖縄と日本本土という二元論的な對立構圖が設けられている。その對立構圖の一つの軸は、西表島の小學校に象徴される沖縄社会と學習院で象徴される日本社会である。言うまでもなく、前者のほうは平等社会であり、後者のほうは階級社会である。もう一つの對立構圖は、上原家が波照間の人々の好意によって住み着いた西表島で展開される。即ち西表島のリゾート開発をめぐる地域社会と中央資本との對立である。結局後者の對立で「敗れた」ことが原因になって、いよいよ上原夫婦はパイパティローマという樂園を目指すようになる。

『サウスバウンド』には、パイパティローマが秘密の樂園、国家權力から離れた自給自足の世界、そして戦争も起らない自由なコミュニティー社会として描かれている。言い換えれば、これは巨大資本が蔓延し、人間同士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れなくなった、また國家權力によって個人の自由が抑圧されている(と見なされた)日本社会に対する痛烈な批判の意味がこめられていると言えるであろう。

КСІ